

2005年 8月
教育學碩士(日本語教育學)學位論文

日本語 授受動詞의 用法에 관한 研究

- やる, くれる, もらう의 用例를 中心으로 -

朝鮮大學校 教育大學院

日本語教育專攻

金 明 姬

2005年8月
教育學碩士學位論文

日本語
授受動詞의
用法에
關한
研究
金
明
姬

日本語 授受動詞의
用法에 관한 研究

- やる, くれる, もらう의 用例를 中心으로 -

*Investigation on Uses of Verbs "Giving" and
"Receiving" in Japanese*

-With examples of the やる (yaru), くれる
(kureru) and もらう (morau)-

2005年 8月 日

朝鮮大學校 教育大學院

日本語教育專攻

金 明 姬

日本語 授受動詞의
用法에 관한 研究

指導教授 朴 青 國

이 論文을 教育學碩士(日本語教育專攻)學位
請求論文으로 提出합니다.

2005年 4月 日

朝鮮大學校 教育大學院

日本語教育專攻

金 明 姬

金明姬의 教育學碩士學位論文을
認准합니다.

審査委員長 朝鮮大學校 教授 金 仁 炫 印

審査委員 朝鮮大學校 教授 朴 青 國 印

審査委員 朝鮮大學校 教授 丁 意 祥 印

2005年 6月 日

朝鮮大學校 教育大學院

目 次

表目次	ii
ASBTRACT	iii
I. 序論 및 先行研究.....	1
1.1.授受動詞의 概念 및 先行研究	2
II. 授受動詞의 受給에 관한 用法研究.....	9
2.1. 受給表現「やる・くれる・もらう」用法의 基本意味.....	9
2.2. 受給表現「やる・くれる・もらう」의 用法分析.....	10
2.2.1. 「やる」	10
2.2.2 「くれる」	11
2.2.3. 「もらう」	12
2.3. 受給表現의 人稱約 制約 과 視點.....	13
2.3.1 「やる」	18
2.3.2 「くれる」	20
2.3.3 「もらう」	21
III. 授受動詞의 受益에 관한 用法研究	24
3.1. 受益表現「~てやる・~てくれる・~てもらう」用法의 基本意味.....	24
3.2. 受益表現「~てやる・~てくれる・~てもらう」의 用法分析.....	27
3.2.1. 「~てやる」	27
3.2.2. 「~てくれる」	29
3.2.3. 「~てもらう」	30
3.3. 受益表現의 不利益・ 迷惑的 意味의 用法.....	32
3.3.1. 「~てやる」	32
3.3.2. 「~てくれる」	33
3.3.3. 「~てもらう」	35
IV. 結論.....	38
참고문헌.....	41

表目次

<表1>.....	7
<表2>.....	7
<表3>.....	13
<表4>.....	15
<表5>.....	16
<表6>.....	17
<表7>.....	20
<表8>.....	21
<表9>.....	22
<表10>.....	23
<表11>	24
<表12>.....	25
<表13>.....	26
<表14>.....	31

ABSTRACT

Investigation on Uses of Verbs "Giving" and "Receiving" in Japanese

*-With examples of the やる (yaru), くれる (kureru)
and もらう (morau)-*

Myung-hee Kim

Advisor : Prof. Chung-kuk Park, Ph.D.

Major in Japanese Language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osun University

There are verbs which mean giving and receiving between human interactions in Japanese verbs. These verbs can be divided into expression of giving and receiving things and of giving and taking an advantageous or disadvantageous act. This study examines the use of expression of giving and receiving with 「やる・くれる・もらう」. Japanese verbs of giving and receiving express giving and receiving, but their uses are decided depending on 「giver」 is subject or 「receiver」 is subject, senior, junior or belongs to 「in-group」 or 「out-group」. Verbs of giving and receiving have common things involving three factors of 「giver」, 「receiver」 and 「object」, but its meaning is varied depending on view of observer, focus of point of time, subject and object. Features of Japanese verbs of giving and receiving include 「restriction in person」 and 「involvement of speaker's point of time」. Chapter 1 of this paper overviews basic meaning of verbs of giving and

receiving through concept and preceding researches of them, chapter 2 understands uses of expression of giving and receiving through related cases and examines restrictions in person and points of time in expression of verbs of giving and receiving centering around 「やる・くれる・もらう」 and chapter 3 shows uses of benefits・merits and those of disadvantage with 「～である・～てくれる・～てもらう」.

This study is to establish right understanding of Japanese verbs of giving and receiving and foundation of their utilization through analysis of their applications.

I. 序論

日本語에서 授受關係를 표현하는 日本語의 動詞 가운데에서는 그 의미가 文中의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거나, 누구의 利益을 도모하는 것을 나타내는 表現들이 있다. 이는 基本的으로 人間相互간에 이루어지는 事物의 移動 즉 授受關係를 나타내는 말로서, 日本語에서는 「授受動詞」「受給表現」「やりもらい動詞」「受給關係를 나타내는 動詞」등으로 불린다. 授受動詞는 일반적으로 事物을 주고받는 受給表現과 利益·不利益이 되는 일이나 그 行爲를 주고받는 表現인 受益表現으로 나눌 수 있다.

授受動詞에는 「やる/あげる/さしあげる」「くれる/さしあげる」「もらう/いただく」세 종류로 나누어 볼 수 있으며, 韓國語에서는 一般動詞인 「주다/받다」가 이에 해당한다. 日本語에서 授受動詞의 성격을 지닌 類義語로서 「與える、受け取る、受ける、渡す、贈る、得る」등이 있는데 本稿에서는 이러한 動詞를 一般動詞로서 구분하고, 「やる,あげる,さしあげる」「くれる,くださる」「もらう,いただく」등 7개를 授受動詞로 구분한다. 아울러 本 論文에서는 이들 授受動詞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授受動詞로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やる・くれる・もらう」를 중심으로 受給表現의 用法과 受益表現의 用法에 대해 考察해보기로 한다.

日本語의 授受動詞는 한가지 授受를 表現하는데 있어서, 각각 「授與者」가 主語인지, 「受惠者」가 主語인지, 순위 사람인지, 손아래사람인지, 또는 상대가 「ウチ」에 속하는지, 「よそもの」즉 「ソト」에 속하는지에 따라 動詞의 使用이 複雑하게 區分된다.

授受動詞는 「授與者(与え手)」와 「受惠者(受け手)」, 「대상(물)」이라는 3가지의 요소가 관여하는 共通點이 있으나 누구의 입장에서 사태를 보는지, 누구에게 視點이 맞춰져 있는지, 누구를 主語로 취하는지, 누구를 目的語로 취하는지에 따라서 그 의미가 달라진다. 즉 日本語의 授受動詞의 특징으로

「人稱의 制約이 있다는 점」, 그리고 「話者の 視點이 관여된다는 점」을 들 수 있다.

本 論文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日本語의 授受動詞에 대한 研究를 進行하고자 한다. 1章에서는 授受動詞의 概念 및 先行研究를 통한 基本의미에 대해 概觀한 후 2章에서는 受給表現「やる・くれる・もらう」를 중심으로 각각의 用例를 통해 受給表現의 用法을 이해하고 受給表現에 있어 人稱的 制約과 視點에 대해 構文上 어떻게 人稱의 制約을 받는지 考察해보고, 3章에서는 授受動詞의 受益表現인 「～てやる, ～てくれる, ～てもらう」를 중심으로 利益・恩惠의 용법 및 不利益을 나타내는 迷惑的인 의미용법에 대해 각각의 用例를 들어가며 本 論文을 전개하고자 한다.

本 論文은 日本語 授受動詞의 受給表現과 受益表現의 用法分析을 통해 日本語의 授受動詞에 대한 올바른 理解 및 활용지식의 바탕을 공고히 하고자 한다.

本 論文에서 使用한 具體的인 用例는 日本小説 및 隨筆을 選擇하여 引用하였으며, 필요에 따라서는 人爲的으로 만들거나 參考文獻 등에서 再引用한 것임을 밝혀둔다.

1.1 授受動詞의 概念 및 先行研究

日本語의 動詞 가운데에서는 文中에서 그 意味가 他人를 위한 행위, 他人의 利益을 위한 作用과 變化, 狀態가 發生하였는가를 나타내는 文法的인 意味가 발달하였다. 人間相互간에 이루어지는 事物의 移動 즉 授受關係를 나타내는 말로서, 日本語에서는 「授受動詞」「受給表現」「やりもらい動詞」「受給關係를 나타내는 動詞」등으로 불린다. 授受動詞는 일반적으로 事物을 주고받는 受給表現과 利益・不利益이 되는 일이나 그 行爲를 주고받는 表現인 受益表現으로 나눌 수 있다.

「授受」란 말 그대로 事物을 주고받거나, 利益·不利益이 되는 일의 行動을 주고받는 表現으로서 日本語表現에 있어 큰 特徴 중의 하나로 꼽을 수 있으며, 우리말로 一般動詞인 「주다/받다」가 이에 해당한다. 日本語에서 授受를 나타내는 表現은 「やる, あげる, さしあげる, くれる, くださる, もらう, いただく」의 7가지 動詞가 있다. 이 7가지 授受動詞가 각각 「授與者」가 主語인지 「受惠者」가 主語인지 하는 視點에 關聯하여 區分하여 보면 「授與者」가 主語 일 때는 「やる, あげる, さしあげる」「くれる, くださる」를 「受惠者」가 主語일 때는 「もらう, いただく」으로 二分 할 수 있다.

그리고, 授受動詞의 올바른 使用을 위해서는 複雑한 日本의 文化, 上下關係, ウチ, ソト意識에 대한 理解가 뒤따라야한다.

「上下關係」란 주로 話者が 본 社會 通念上の 身分과 地位, 年齡을 기준으로 하는 관계이다. 즉, 社會的 地位의 上下, 같은 학교나 동료 관계에서의 선·후배, 親族關係에 있어서 上下關係이다. 순위, 손아래의 구별이라는 上下關係 문제와 授與者와 受惠者 그리고 話자에게 있어서 상대가 「안쪽(ウチ, in-group)」에 속하는지, 「바깥쪽(ソト, よそもの, out-group)」에 속하는지에 따라 보는 内外關係가 성립한다.

「親族關係」란 話자에게 있어서 화제의 인물 또는 聽者が 「ウチ」의 사람인가 「ソト」의 사람인가 하는 관계이다. 「ウチ」란 話자에게 있어서 친한 그룹이다. 日本人에게 있어서 전형적인 우치는 가족이다. 가족에 준하여 동아리, 社會, 所屬集團도 우치에 포함된다. 「ソト」는 우치이외의 상대적으로 친하지 않은 그룹이다. 話자가 所屬한 範圍에 포함되면 「우치」이고, 포함되지 않으면 「소토」로 취급한다. 待遇表現에 있어서는 친족에 있어서 「親」(우치)는 上下關係의 「下」, 「族」(소토)는 「上」과 동일하게 취급받는다. 親族關係가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聽者(화제의 인물이 아닌)가 소토의 사람인 경우이다.

授受表現을 포함한 待遇表現에 있어서 특히 주의해야 할 것은 자기 가족의 일원을 화제로 하는 경우이다. 남동생, 여동생과 같은 손아래 사람에 관해서

는 문제가 없으나 순위 사람을 화제로 하는 경우는 聽者が ウチ(즉 同一家族)에 속하는가, ソト에 속하는 가로서 표현이 달라진다. 즉, ソト에 속하는 聽者에 대해서는 화제의 인물이 가족내의 순위 사람이라도 손아래 사람과 같이 취급된다. 그리고 가족 構成員의 呼稱도 당연히 바뀌게 된다. 이처럼, 人間關係에 있어 物件과 行爲의 주고받음을 표현하는 이러한 표현은 日本人의 發想과 깊게 연관되어 있어, 授受動詞의 언어적 특성에서 복잡한 日本人의 文化, 上下意識, ウチ, ソト意識을 접하게 된다. 言語속에 내재된 人間關係에 대한 의식을 고찰하는 것도 授受表現의 바른 理解를 위한 방법이라 하겠다.

授受動詞는 「授與者(与え手)」와 「受惠者(受け手)」, 「對象(物)」이라는 3가지의 요소가 관여하는 共通點이 있으나 누구의 立場에서 事態를 보는지, 누구에게 視點이 맞춰져 있는지, 누구를 主語로 취하는지, 누구를 目的語로 취하는지에 따라서 意味가 달라진다. 다시 말해, 日本語의 授受動詞의 特徵은 人稱 制約이 있다는 점, 그리고 話者の 視點이 관여된다는 점이 特別하다 할 수 있다.

이들 動詞의 基本的인 特徵은 人間相互間에 事物의 移動이나 行爲가 이루어지는 主語와 對象語 사이에 恩惠나 利益을 나타낸다. 授受動詞 표현은 受給表現과 受益表現으로 나눌 수 있다. 物件을 주고받는 표현의 대표적인 受給表現에는 「やる(あげる)・くれる・もらう」가 있고, 行爲를 주고받는 受益表現에는 「～てやる(あげる)・～てくれる・～てもらう」가 있다. 그리고, 이들 授受動詞는 상대가 「ウチ」에 속하는가 「よそもの」 즉 「ソト」에 속하는가에 따라 動詞의 使用이 複雑하게 區分된다.

授受動詞는 物件을 주고받는 표현의 대표적인 受給表現으로 「やる(あげる)・くれる・もらう」가 있으며, 이러한 本動詞로서의 受給表現을 나타내는 用法이외에 接續助詞 「て」를 덧붙여 사용되는 補助動詞로서의 用法인 受益表現을 나타내는 用法은 「～てやる(あげる)・～てくれる・～てもらう」가 있다, 恩惠의 授受 그 이외에도 迷惑的인 意味用法도 가진다. 그리고 授受動詞는 적어도 두 사람의 人間을 素材로 한, 恩惠・利益을 提供하는側과 받

는側이라고 하는 人間關係가 성립한다. 여기서, 이것들의 行爲나 恩惠 및 방향을 나타내는 方向性이, 自然스럽게 다른 敬語表現으로 連結되어 授受의 概念을 넘은 여러 가지 表現이 可能하다. 순위, 손아래의 區別이라는 待遇表現의 問題와 敬語表現으로 發展하는 複雜한 構造를 가지고 있으며, 敬語表現에서 볼 때 日本語의 敬語에서 가지는 日本文化의 特色으로 相對方에게 自身을 낮추거나, 相對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따른다는 日本人들의 心性이나 慣習의 反映이라 할 수 있는 表現들을 授受動詞의 敬語表現의 用法에서 찾아볼 수 있다. 지금도 授受動詞에 대한 研究가 활발히 進行되고 있다.

先行研究의 흐름을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通語論的 觀點에서 宮地裕(1956), 久野 暉(1978), 紫谷方良(1978), 仁田義雄(1980), 形態論的 觀點에서는 鈴木重幸(1972), 敬語表現과의 關係에서의 연구는 上野田鶴子(1978), 動作의 方向성에 대한 研究는寺村秀夫(1982),意味論的 觀點연구는 森田良行·松木正惠(1989)등이 있다. 본 論文에서는 意味用法에 관한 先行研究로서 奥津敬一朗(1986), 豊田豊子(1974), 森田良行·松木正惠(1989), 宮地 裕(1956), 久野 暉(1978), 松下大三郎의 先行研究를 살펴보기로 한다. 奥津敬一朗, 森田良子, 豊田豊子, 宮地 裕의 선행연구를 중심으로 간략히 정리해본다.

日本語의 授受動詞에 관한 先行研究중에서 奥津敬一朗(1986)¹⁾는 日本語의 授受動詞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与え手」「受け手」「目上」「目下」「身内」「ヨソモノ」「主語」「非主語」등의 概念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授受動詞를 話者の 視点에 따라 「授與者」를 主語로 取하는 「やる」「あげる」「さしあげる」「くれる」「くださる」의 授與動詞와 「受患者」를 主語로 取하는 「もらう」「いただく」의 授取動詞로 구분하였다. 이러한 授受動詞는 行爲者와 對象者間의 人間關係에 따라 「授與者」와 「受患者」의 社會的 地位, 年齡, 身分 등을 考慮하여 表現하는 待遇關係와 話者の 立場에서 보다 가까운 쪽을 「안쪽(うち)」으로, 보다 먼 쪽을 「바깥쪽(よその、そ

1) 奥津敬一朗(1986) 「やりもらい動詞」, 國文學解釋の鑑賞51卷1号, 至文堂

と)」으로 보는 内外關係로 나누어 表現된다고 보고 이러한 授受動詞는 누구를 主語로 취하는지 누구의 視点에서 事態를 보는지에 따라 授受動詞의 使用이 달라진다고 설명하고 있다.

森田良子(1977)²⁾는 授受動詞의 恩惠 및 利益의 授受이외에도 不利益을 주는 것에 대해 언급하고, 不利益의 제공과 강한 意志를 表現하는 경우를 포함해서 細分해서 說明하고 있다.

豊田豊子(1974)³⁾는 授受動詞를 本動詞와 補助動詞로 구분하여, 특히 「やる・くれる・もらう」가 補助動詞로 쓰일 경우의 意味用法을 「利益・恩惠의 意味」와 「不利益・迷惑의 意味」로 나누어 說明하고, 「～てやる」의 用法이 自己自身の 意志를 나타내는 用法과 方向을 나타내는 用法으로서 說明하고 있다.

宮地 裕⁴⁾(1965)는 「やる」와 「くれる」는 主語와 目的語는 同一하지만, 話者の 表現位置가 다르다는 것과, 「もらう」와 「くれる」는 話者の 表現位置는 同一하지만 主語와 目的語의 교체로 對立하고 있다고 보고 授受動詞는 人稱制約 즉, 人稱構文에 있어서 話者の 關與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았다. 話者の 關與에 따라 人稱構文上の 述語가 斷定形式, 質問形式, すすめ形式, 命令形式에 따라 人稱의 制約이 따른다고 설명하고 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人稱制約과 視點 항목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言語學의 文法研究에서 等한시 해왔던 日本語에서의 「視點 概念」을 도입하여 정식화한 사람이 久野 暉⁵⁾(1978)이다. 久野 暉은 말하는 사람이 文이나 談話文에서 어느 등장 인물 측에 서서 사물을 바라보고 있는가 즉 「話者の 立場」의 문제를 「話者の 視點」의 問題로 보고, 授受動詞 및 授受補助動詞에 대해 분석한 것으로 受與動詞의 視點理論에 의해 설명하고 있다.

2) 森田良子(1977) 『基礎日本語』 角川書店. p456

3) 豊田豊子(1974), 『補助動詞「やる・くれる・もらう」について』, 日本語学校論集 1号, 東京外大附属日本語学校

4) 宮地 裕(1965), 『言葉の研究』(第2集) 『敬語の理解』, 秀英出版

5) 久野 暉(1978), 『談話の文法』大修館書店 p.128

授受補助動詞의 基本的인 意味分析에서 생각해보면, 松下大三郎(1924)⁶⁾는 「~てやる(あげる)・~てくれる・~てもらう」의 세 形態로 보고 그 작용이 다른 사람의 이익이 되는 것으로 보았다. 「自行他利, 他行自利, 自行自利」로 분류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표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表1)

	利益을 授與者	利益을 受惠者
~してやる	主語	對象語 (話者, 話者側以外の 사람)
~してもらう	對象語	主語
~してくれる	主語 (話者以外の 사람)	對象語 (話者 혹은 話者側の 사람)

鈴木重幸⁷⁾(1972)의 경우는 受益表現의 用法에 있어 觀點과 鄭重도에 따라서 세 가지로 나누고 語形變化 하는 것으로 보았다. 鈴木重幸의 理論은 다음의 표와 같다.

(表2)

~てやる ~てあげる	自行他利	自身이 行動하여 他人을 이롭게 하는 경우
~てくれる ~てくださる	他行自利	他人이 主体가 되어 自身에게 利益을 주도록 행동하는 경우.
~もらう ~ていただく	自行自利	실제로 行爲를 하는 것은 自身이 아니지만 「もらう」의 主体가 自身인 경우

(鈴木重幸 『日本語文法・形態論』 むぎ書房 p.392)

6) 松下大三郎(1924) 『標準日本語文法』 紀元社

7) 鈴木重幸(1972) 『日本語文法・形態論』 むぎ書房 p.392

以上 先行研究을 살펴보았다. 이들 先行研究는 주로 行爲에 관한 利益과 話者의 立場의 視點, 話者의 關與를 중심으로 하고 있다. 本 論文에서는 위의 先行研究 結果를 바탕으로 日本語의 授受表現의 바른 理解를 위해 日本語 授受動詞에 관한 用法研究를 進行하고자 한다.

II. 授受動詞의 受給에 관한 用法研究

2.1. 受給表現 「やる・くれる・もらう」 用法의 基本意味

受給表現에 쓰이는 대표적인 動詞로는 「やる・くれる・もらう」의 3가지 動詞가 있다. 受給表現의 用法은 物件의 授受를 나타내는데 누가 누구에게 주는가에 따라서 動詞의 區分이 있다. 受給表現에는 ‘授與者’ ‘受惠者’ ‘이동하는 物件’의 3요소가 필요하다.

授受動詞 「やる・くれる・もらう」는 각각 누가(誰々が), 누구에게(誰々に), 무엇을(何を) 이라고 하는 名詞句와 함께 文章을 구성하여 だれ ガ/ハ だれ ニ/カラ 何 ヲ 授受動詞(やる・くれる・もらう)와 같은 文型으로 사용된다. 즉, 「やる」, 「くれる」, 「もらう」는 「(主體)가+(相對)ニ+(對象)_ヲ+動詞」의 構文으로 表現한다. 이들 主動詞는 기본적으로 物件의 移動關係를 나타낸다. 「やる・くれる・もらう」이들 동사는 本動詞로서의 物件의 授受關係를 나타내는데 「AからBに物を渡される」라는 事項을, 「やる・くれる・もらう」를 述語로서 表現하면 다음과 같다.

用例를 들어보면,

- (1) 太郎(A)が次郎(B)にボールをやる。
- (2) 太郎(A)が次郎(A)にボールをくれる。
- (3) 太郎(A)が次郎(B)にボールを渡す。
- (4) 太郎(A)が次郎(B)にボールをもらう。

用例(1)에서는 불이 太郎로부터 次郎에게 移動하는 것을 가리키고, 「가」가 붙은 名詞句에서 「に」가 붙은 名詞句로 移動이 일어난다. 이와 같이 「가

名詞句」에서 「に名詞句」로 物件의 移動이 일어나는 경우는 다른 動詞에도 있고, (3)의 動詞 「渡す」도 그런 一例이다. 物件의 移動이라는 點에서 보면 (1)~(3)의 文에서는 (A が → B に)의 화살표 방향으로 物件이 以東하게 된다. 太郎(A)가 「ボール」를 「授與者」이고, 次郎(B)가 「ボール」를 「受惠者」가 된다. 한편, 「もらう」를 사용한 文에서는 (A が ← B に)과 같은 관계가 나타나게되고, 物件의 移動은 「に名詞句」에서 「が名詞句」의 방향으로 일어나게 된다. 太郎(A)가 「ボール」를 「受惠者」이고, 次郎(B)는 「ボール」를 「授與者」가 된다. 그런데 여기서 「が名詞句」가 「授與者」를 나타내는 構文으로서 受身文을 생각할 수 있다. (3)의 受身文은 (5)의 文章이며, (4)와 같은 物件의 移動을 나타낸다.

(5)次郎(B)が太郎(A)にボールを渡される。

동사 「やる」의 受身形으로는 「やられる」를 생략 할 수 있으나, 이것은 現代日本語에서는 쓰이지 않으며, 「やる」는 太郎(A)측에서 말하는 경우밖에 사용되지 않는다고 하는 用法上的 意味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もらう」를 사용한 構文이 受身文에 相應한다고 생각하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2.2. 受給表現 「やる・くれる・もらう」의 用法 分析

2.2.1. 「やる」

「やる」는 話자가 「授與者」의 立場에서 行爲를 表現하는 것으로서 行爲의 主体이며, 「受惠者」는 손아랫사람이거나 動植物일 경우, 또는 相對方에게 자신의 가족에 관해서 말할 경우에 사용된다. 또한 男性은 相對方이 자신과 同等하다고 생각되는 위치에 있을 경우에 이 表現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⁸⁾

- (6) 私は妹に小遣いをやった。
- (7) 私は毎朝植木鉢に水をやります。
- (8) 田中は加藤に何かをやったらしい。

現代日本語에서는 「やる」를 써야하는 文章에서도 「あげる」를 쓰는 경우가 많은데, 특히 여성의 경우는 「やる」보다는 「あげる」의 사용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 「やる」는 자신이 행동해서 他人에게 利益을 주는 경우로 「自行他利」의 表現이다. 아래의 用例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

- (9) 私は妹にプレゼントをあげた。
- (10) 私は毎朝植木鉢に水をあげます。
- (11) 私は毎朝犬にえさをあげます。

2.2.2. 「くれる」

「くれる」는 他人으로부터 話者 또는 話者 側の 사람에게 所有權이 移動되는 受給表現이다. 또한, 他人이 主體가 되어 自身에게 利益이 되는 「他行自利」의 表現이다. 「くれる」는 「受惠者」는 話者 또는 話者 側の 사람을 취하며 「授與者」와 「受惠者」의 관계가 同等하거나 「受惠者」가 손아랫사람일 경우에 사용한다. 「くれる」가 쓰이는 문장에서, 「授與者」가 손윗사람일 때에는 「くれる」의 尊敬語인 「くださる」를 쓸 수 있다. 同等한 關係라고 하더라도 친하지 않는 경우에도 사용한다.

- (12) 田中が私に本をくれた。(田中= 私 .동등한 관계)

8) 日本語教育學會編 『日本語教育事典』大脩館書店(1988) p.208

(13) 妹が私にプレゼントをくれた。(妹 <わたし> . 손아랫사람)

(14) 先生が私に本をくださいました。(先生) 私. 손윗사람)

(15) 田中さんが私に本をくださいました。

(田中さん= 私. 동등한 관계 . 친하지 않은 관계)

2.2.3. 「もらう」

「もらう」의 경우는 事物이나 所有權의 移動을 「受惠者」의 立場에서 表現한 것이다. 主語인 「受惠者」가 話者가 아닌 「授與者」에게 物件이나 行爲를 받는 것을 말한다. 「もらう」는 「に・から」 어느 것이나 成立하므로 受身的 氣分이 강한 行爲이다. 아래의 用例에서 볼 수 있듯이 모두 「受惠者」의 立場에서 表現한 것이고, 文型은 「BはAから/にCをもらう」의 形態이다.

(16) 何度も頼んでやっと許可をもらった。

(17) 父から小遣いをもらった。

(18) 今月の給料をもらった。

(19) たいていの人はやることよりもらうことが好きです。

위의 (16)은 「受惠者」의 意志 하나로 定해지는 行爲로서 「授與者」쪽의 作用의 起點이지만, 그래도 「受惠者」의 意志에 의해 決定된다.

「授與者」 「受惠者」와의 關係가 客觀적인 立場이라고 말 할 수 있다.

또한 아래의 用例와 같이 「授與者」가 손윗사람일 경우 「いただく」를 使用해서 話者를 낮추고 相對方을 높이는 謙讓語로서의 表現이 된다.

(20) 私は先生に(から)本をいただきました。

(21) 私は會社からボーナスをいただきました。

이와 같이, 그리고, 실제로 行爲를 하는 것은 自身이 아니지만 「もらう・いただく」의 主体가 自身인 경우, 「自行自利」의 表現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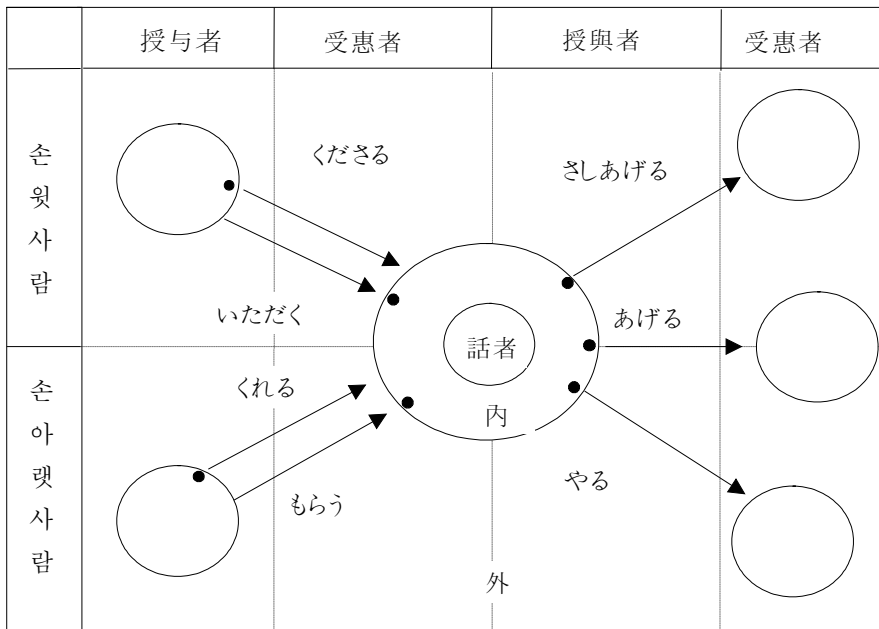
위의 文章에서도 언급했지만 授受動詞의 敬語形과 非敬語形을 區分지워보면 非敬語形 「やる・くれる・もらう」는 각각 敬語形 「あげる／さしあげる・くださる・いただく」 表現할 수 있다.

2.3. 受給表現의 人稱約 制約과 視點

受給表現과 受益表現에는 「授与者」와 「受惠者」, 「対象(物)」의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하다. 授受動詞는 이 세 가지의 요소가 관여하는 共通點이 있으나 누구의 立場에서 事態를 보는지, 누구에게 視點이 맞춰져 있는지, 누구를 主語로 취하는지, 누구를 目的語로 취하는지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진다.

授受動詞의 方向性を 表로 나타내면 다음의 <表3>로 설명할 수 있다.

<表3> 授受動詞의 体系⁹⁾(●는 주어를 나타낸다)



9) 奥津敬一朗(1986) 「やりもらい動詞」, 國文學解釋の鑑賞51卷1号, 至文堂.P99.

위의 表에서 「やる」 기능부터 살펴보면 「話者」가 「授與者」의 立場에 있고, 動作을 表現하는 行動의 主體이며, 「受惠者」가 話者보다 序列이 낮거나 家族이나 動物인 경우에 사용된다. 話者쪽에서 相對方쪽으로 物件이 移動하게 되면 「やった」 또는 「あげた」라고 표현하고, 相對쪽에서 自己쪽으로 物件이 移動한 경우에는 상대가 나에게 物件을 「くれた」나 「くださった」라고 한다. 이렇게 主語에 따라 人稱의 變化가 일어난다. 日本語에서는 物件의 所有권이 누구에게서 누구에게 移動하는 가에 따라 그 表現이 대단히 複雜하게 나뉘어 사용된다는 特徵이 있다. 日本語의 一般動詞에서는 人稱의 變化가 일어나지 않지만, 授受動詞에 한해서 일어남을 알 수 있다.

「くれる」은 「授與者」가 主語이고 非 尊敬語이며, 「外」에서 「内」로의 移動하는 경우 사용된다. 「くださる」은 「授與者」가 主語이고, 尊敬語이며, 話者에게 있어서 바깥 쪽, 즉 「外」에서 話者에게 있어서 가까운 쪽(가족, 소속집단 등), 즉 「内」로 移動하는 경우 사용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もらう」은 「受惠者」가 主語이며 非尊敬語로서 「外」에서 「内」로 移動하는 경우 사용된다. 「いただく」은 「授與者」가 主語가 아닌 「受惠者」를 主語로 취하고 「授與者」에 대한 謙讓語라는 것을 알 수 있으며 「外」에서 「内」로 移動하는 경우 사용된다.

「さしあげる」「あげる」「やる」은 「授與者」가 主語이고 「内」에서 「外」로 「外」로 移動할 경우 사용된다는 共通점이 있지만 「さしあげる」은 「受惠者」를 높이는 謙讓語이고, 「やる」은 非 尊敬語라 할 수 있다. 이에 「あげる」은 「さしあげる」정도로 鄭重하지는 않지만 「やる」보다는 鄭重한 위치에 있는 表現이라고 할 수 있다. 또 授受動詞의 경우 人間關係에서 있어서 事物의 移動關係를 나타내기 때문에 주는 쪽과 받는 쪽의 關係에서 자연스럽게 待遇表現도 발달하였다. 즉, 「やる」은 「あげる・さしあげる」, 「くれる」은 「くださる」, 「もらう」은 「いただく」가 있다. 이들을 각각 尊敬語와 謙讓語의 用法을 갖고 있는 것으로써 정리해보면 아래 <표 4>와 같다.

<표 4>

	謙讓語	尊敬語
やる	あげる・さしあげる	
くれる		くださる
もらう	いただく	

日本語에서는 話者側 이라고 하는 立場의 문제에 있어서 「やる」와 「くれる」로 사용되는 것 에 비해, 韓國語에서는 「주다」 하나뿐이다. 그리고 「もらう」는 「받다」를 들 수 있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면,

- (22) a. 太郎が次郎に本をやる。
 b. 次郎が太郎に本をもらう。
 c. 太郎が次郎に本をくれる。

a와 c, 즉やる와 くれる를 대비시켜보면 「太郎」가 「次郎」에게 책을 준다. a는 話者が 「太郎」의 側에 선 표현이고, b는 話者が 「次郎」側에 선 표현이다. 여기에서 볼수 있듯이 a와 c는 主語와 目的語 같고 그 표현에 있어서 話者の 표현위치가 다르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b와 c는 話者の 표현위치가 같고 b와 c는 主語와 目的語의 교체로 對立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話者が 어느 쪽에 서느냐에 따라 위와 같이 표현이 세 가지로 나뉘게 되며, 결국은 授受 動詞에서는 a,b,c중에서 a와 b의 대립관계로 볼 수 있다. 日本語 특유의 話者の 關與문제가 발생한다. 이처럼 話者の 表現位置 즉 話者の 關與가 표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위의 내용을 표로 간략히 나타내 보면 아래의 <表5> 와 같다.

<表5> 授受動詞의 用法 「(◎)」는 話者의 關與

	主語	事物의 이동방향	目的語
やる	太郎(◎)	→	次郎
もらう	次郎(◎)	←	太郎
くれる	太郎	→	次郎(◎)

「(◎)」는 話者의 關與

日本語의 授受動詞에 있어 큰 특징은 方向性을 가진다는 것과 主格에 있어 人稱制約이 있다는 점, 그리고 話者의 視点이 關與된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또한 「授與者」를 「私(1人稱)」로 취할 것인지 또는 「他人(3人稱)」을 취할 것인지, 바꾸어 말하면, 「受惠者」를 「私(1人稱)」로 취할 것인지 「他人(3人稱)」으로 취할 것인가에 따라서도 動詞의 使用이 複雑하게 區分된다는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宮地 裕¹⁰⁾(1965)의 說에 따르기로 하겠다. 話者의 關與에 따라 人稱構文上의 述語가 斷定形式, 質問形式, すすめ形式, 命令形式에 따라 人稱의 制約이 따른다고 설명하고 있다.

예를 들면, 私が君(彼)にくれる・くれるか・くれないか・くれ나 彼が君(私)にくれないか・くれ로 사용할 수 없고, 話者가 「彼」의 立場에서 君が彼にくれ. 의 使用이 가능하다. 宮地 裕는 人稱構文上의 制約을 아래의 표와 같이 제시하고 있다.

<表6>¹¹⁾ 《參考 一般動詞の斷定形式》

10) 宮地 裕(1965), 『言葉の研究』(第2集) 『敬語の理解』, 秀英出版

11) 宮地裕(1965), 「『やる・くれる・もらう』を述語とする文の構造について」國語學63号, pp26~27.

〈與える・渡す・受ける〉

渡す	私に	君に	彼に
私が		○	○
君が	○		○
彼が	○	○	

受ける	私に	君に	彼に
私が		○	○
君が	○		○
彼が	○	○	

與える	私に	君に	彼に
私が		○	○
君が	○		○
彼が	○	○	

〈やる〉

やる	私に	君に	彼に
私が		○	○
君が	×		○
彼が	×	○	

やるか	私に	君に	彼に
私が		○	○
君が	×		○
彼が	×	○	

やらないか	私に	君に	彼に
私が		×	×
君が	×		○
彼が	×	×	

やれ	私に	君に	彼に
私が		×	×
君が	×		○
彼が	×	×	

断定形式

質問形式

すすめ形式

命令形式

〈くれる〉

くれる	私に	君に	彼に
私が		×	×
君が	○		○
彼が	○	○	

断定形式

〈もらう〉

もらう	私に	君に	彼に
私が		○	○
君が	×		○
彼が	×	○	

くれるか	私に	君に	彼に
私が		×	×
君が	○		○
彼が	×	×	

質
問
形
式

もらうか	私に	君に	彼に
私が		○	○
君が	×		○
彼が	×	○	

くれないか	私に	君に	彼に
私が		×	×
君が	○		△
彼が	×	×	

す
す
め
形
式

もらわないか	私に	君に	彼に
私が		×	×
君が	×		○
彼が	×	×	

くれ	私に	君に	彼に
私が		×	×
君が	○		△
彼が	×	×	

命
令
形
式

もらえ	私に	君に	彼に
私が		×	×
君が	×		○
彼が	×	×	

授受動詞에 있어 視點에 관한 용법에 있어 本論文에서는 말하는 사람이 文이나 談話文에서 어느 등장 인물 측에 서서 사물을 바라보고 있는가 즉 「話者の立場」의 문제를 「話者の視點」의 問題로 보고, 授受動詞의 受給表現과 受益表現의 視點에 대한 분석한 久野 暉¹²⁾(1978)의 視點理論을 적용하여 따르기도 한다.

2.3.1. 「やる」

12) 久野 暉(1978), 『談話の文法』大修館書店 p.128

「やる・あげる」는 기본적으로 「私(1人稱)」로 부터 「あなた(2人稱)또는 他人(3人稱)」에게 사물의 所有權이 移動될 때, 「私(1人稱)」를 主語로 해서 만드는 受給表現이다. 또한 人稱序列의 순서를 1人稱(話者)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 2人稱(聽者), 3人稱(제3자)의 순서로 볼 때 「やる」, 「あげる」는 「授與者」쪽이 「受惠者」 쪽보다 人稱序列이 높거나 같을 때 使用한다.

(23) 私がおまえに日本語の辭書をあげたの。

(24) あなたが佐藤に花束をあげましたか。

(25) 佐藤が田中に本をあげました。

위의 用例(23)은 「授與者」가 1人稱, 「受惠者」이가 2人稱인 경우이고, (24)는 「授與者」가 2人稱, 「受惠者」가 3人稱인 경우이고, (25)는 「授與者」와 「受惠者」가 모두 3人稱인 경우이다. 여기서 「やる」「あげる」는 「授與者」가 「受惠者」쪽보다 人稱序列이 높거나 동등한 경우에 使用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用例 (23)에서는 「私」가, (24)와 (25)에서는 「あなた」「佐藤」가 「授與者」이며 主語이고, 「おまえ」, 「佐藤」, 「田中」는 각각 「受惠者」이며 文의 目的語이다.

(26)' *おまえが私に日本語の辭書をあげたの。

(27)' *佐藤があなたに花束をあげましたか。

(28)' 田中が佐藤に本をあげました。

위의 用例 중 (28)' 을 제외한 (26)' (27)' 은 不自然스러운 表現이다. 前述했듯이 「やる」「あげる」는 人稱 序列 上 「授與者」가 「受惠者」보다 人稱 序列이 높거나 같을 때 使用한다. 위의 用例를 보더라도 「やる」「あげる」가 人稱上의 制約을 받고있음을 알 수 있다.

(29) AはBに本をやった

예를 든 것과 같이 「やる」의 視點은 말하는 사람의 시점이 主語 側일 때 사용된다. 이처럼 視點은 話者の 입장에서 자기중심의 시점으로 파악하여 서술하는 특징이 있으므로 「やる」「あげる」「さしあげる」의 視點은 「授與者」에 있다. 「やる」는 目的語가 나타내는 인물보다도 主語가 나타내는 人物 側의 시점을 요구하는 동사이다. 受給表現인 「やる」를 整理해 보면 <表 7> 다음과 같다.

<表 7>

やる	授與者		受惠者
사물의 이동	授與者	→	受惠者
인칭의 서열	1인칭	≥	2, 3인칭
시점의 위치	主語(視點)		目的語

2.3.2. 「くれる」

「くれる」는 기본적으로 「他人(3人稱)또는 あなた(2人稱)」가 「나(1人稱)」 또는 나와 가까운 쪽의 사람(가족 등)에게 물건을 줄 때, 즉 他人을 主語로 해서 만드는 受給表現이다. 또한 위에서 살펴보았던 「やる」와는 반대로 「授與者」가 「受惠者」쪽보다 人稱序列이 낮을 때 使用한다.

(30) 佐藤さんはあなたにどんな本をくれましたか。

(31) 昨日あなたが私にくれた本は、もう全部 読みました。

위의 用例 (30)는 「授與者」가 3人稱, 「受惠者」가 2人稱이고, (31)는

「授與者」가 2인칭, 「受惠者」가 1인칭으로 (1인칭>2인칭>3인칭) 「授與者」가 「受惠者」쪽보다 人稱序列이 낮을 때 使用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くれる」의 視點은 말하는 사람의 視點이 主語(주는 사람)보다는 目的語(받는 사람)측에 있고, 目的語가 나타내는 人物에 視點을 두는 동사이다. 例文(30), (31)은 각각 「佐藤さん」「あなた」가 「授與者」이고 主語이며, 「あなた」「私」가 「受惠者」이고 目的語이다. 視點 또한 目的語에 있음을 알 수 있다. 「くれる」의 使用에 있어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면 「3人稱」이 「3人稱」에게로의 行爲일 때 다음의 (32)의 用例에서처럼 「受惠者」가 話者측의 사람과 가깝거나, 가깝다고 간주되는 사이일 경우에는 「くれる」을 使用해야 한다.

(32) 田中さんは (私の)妹にプレゼントをくれました。

「くれる」을 整理하면 <表 8>과 같다.

<表8>

くれる	授與者		受惠者
사물의 이동	授與者	→	受惠者
인칭의 서열	2, 3인칭	<	1인칭
시점의 위치	主語		目的語(視點)

2.3.3. 「もらう」

「もらう」는 「やる」, 「くれる」와는 「受惠者」가 主語의 자리에 온다. 또한 主語인 「受惠者」에는 話者(1인칭) 또는 話者 側의 사람이 오는 경우가 보통이다. 視點또한 「受惠者」에 있음을 알 수 있다.

(33) (私が)あなたにもらった本はもう全部 読みました。

(34) あなたは佐藤に何をもらいましたか。

(35) 田中くんは花子さんにチョコレートをもらいました。

위의 用例 (33)은 「受惠者」가 1人稱이고 「授與者」가 2人稱, (34)는 「受惠者」가 2人稱이고 「授與者」가 3人稱, (35)은 「授與者」 와 「受惠者」가 모두 3人稱이다. 위의 用例에서 「受惠者」는 각각 「私」 「あなた」 「田中」로서, 文의 主語에 해당하고, 「あなた」 「佐藤」 「花子さん」은 「授與者」로서 文의 目的語에 해당된다. 따라서 「もらう」는 「授與者」가 「受惠者」보다 人稱序列이 낮거나 同等한 경우에 使用한다.

「もらう」는 主語 側의 視點을 요구하는 動詞이며 主語중심의 視點을 필요로 한다. 「もらう」를 整理하면 <表9>와 같다.

<表9>

もらう	受惠者		授與者
사물의 이동	受惠者	←	授與者
인칭의 서열	1인칭	≥	2, 3인칭
시점의 위치	主語 (視點)		目的語

本章에서는 受給表現에 있어 人稱制約과 視點에 관해 考察해 보았다. 「やる」, 「くれる」, 「もらう」, 의 授受動詞는 각각 人稱上 制約을 갖고 話者の 視點이 개입하는 動詞이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다시 말해, 「やる」는 「授與者」쪽에 視點을 두고 있으며, 「授與者」가 「受惠者」보다 人稱序列 (1人稱(私)>2人稱(あなた)>3人稱(他人))이 높거나 同等한 경우에 使用한 表現이며, 「くれる」는 「受惠者」쪽에 視點을 두고 있고, 「授與者」가 「受惠者」보다 人稱序列이 낮은 경우에 使用하고 「受惠者」쪽에 視點을

은 表現이다. 「もらう」는 受惠者」쪽에 視点이 있고, 「授與者」가 「受惠者」보다 人稱序列이 낮거나 同等한 경우에 使用하는 表現임을 알수 있었다. 以上 受給表現에 있어 人稱制約과 話者の 視点에 關係 整理하면 <表10>과 같다.

<表10>受給表現의 視点과 人稱과의 關係

	授與者	受惠者	視 點	人 稱
やる／あげる/ さしあげる	主 語	目的語	主 語(授與者)	授與者 ≥ 受惠者
くれる／くださる	主 語	目的語	目的語(受惠者)	授與者 < 受惠者
もらう／いただく	目的語	主 語	主 語(受惠者)	授與者 ≤ 受惠者

Ⅲ. 授受動詞의 受益에 관한 用法研究

本章에서는 대표적인 受益表現 「~てやる・~てくれる・~てもらう」用法의 基本意味와 각각의 用法에 대해 考察하고, 受益表現에 있어서의 恩惠나 利益을 나타내는 용법 이외에도 不利益・迷惑的인 意味의 用法에 대해 用例를 통해 考察해 보기로 한다.

3.1. 受益表現 「~てやる・~てくれる・~てもらう」用法의 基本意味

受給表現이 事物의 授受關係를 나타내는데 비해 受益表現의 대부분은 기본적으로 恩惠가 되는 일 또는 行爲의 授受關係를 나타내는 表現이다. 다시 말해, 受益表現은 利益이 되는 行爲나 일을 提供하거나 받을 때 쓰는 表現으로써 대표적인 受益表現에는 「~てやる」「~てくれる」「~てもらう」가 있다. 松下(1930)¹³⁾는 「~てやる」「~てくれる」「~てもらう」의 3가지 形態를 利益態로 보고 다음과 같이 分類하고 있다.

<表11> 受益態의 分類

~てやる ~てあげる	自行他利態
~てくれる ~てくださる	他行自利態
~てもらう ~ていただく	自行自利態

13) 松下大三郎(1924) 『標準日本語文法』 紀元社

「~てやる」는 他人을 위해서 행하는 動作의 表現으로 보고, 「~てもら
う」는 他人에게 行爲를 받는 動作의 表現이며, 「~てくれる」는 他人이 行
爲를 해주는 動作으로서 表現하고 있다.

受益表現에서 ‘授與者’와 ‘受惠者’의 서열관계는 1인칭, 2인칭, 3인칭
의 순으로 受給表現의 경우와 같다. 受益表現에 있어 「授與者」와 「受惠
者」사이의 人稱 序列關係와 視점에 관해서는 受給表現의 경우와 同一하다.

受益表現에 관한 先行研究는 주로 行爲의 利益을 나타내는 의미용법과 視
점에 관한 研究가 대부분인데, 鈴木重幸(1972)¹⁴⁾은 受益表現을 視点과 鄭重
度에 따라서 <表12>과 같이 分類하고 있다.

<表12> 受益表現의 視点과 鄭重度

	受益을 授與者	受益을 受惠者
~してやる	主語	對象語 (話者・話者側以外의 人)
~してもら う	對象語	主語
~てくれる	主語(話者以外의 人)	對象語(話者・話者側 人)

「~てやる/~てくれる/~てもら
う」의 構文에 대해서 例文을 통해 考察해보
면, 「行爲의 授受關係」를 나타내는데 있어서 話者の 關與가 文에 중요한
影響을 미치고 있음을 아래의 用例를 통해서 볼 수 있다.

(36) 太郎(A)가次郎(B)に本を買ってやる。

(37) 太郎(A)가次郎(B)に本を買ってくれる。

(38) 次郎(B)가太郎(A)に本を買ってもらう。

14) 鈴木重幸(1972) 『日本語文法・形態論』(p.392). むぎ書房

위에서 보듯이 (A)는 利益을 주는 「授與者」이고, (B)는 利益을 받는 「受惠者」이다. 그리고, 위의 例文과 같이 「買う」와 「やる・くれる」의 主體가 같고, 「買う」의 主體가 一致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36)와 (37)의 「~てやる・~てくれる」文은 「授與者」를 主語로 하며 (38)의 「~てもらう」文은 「受惠者」를 主語로 하고 있다. (36)와 (37)의 文의 차이는 「~てやる」는 「授與者」가 「話者」의 立場에서 表現하고 있는데 반해, 「~てくれる」는 「受惠者」가 「話者」의 立場에서 表現하고 있는 점이다. 그리고 「~てもらう」는 利益을 「受惠者」를 主語로 하며, 利益의 「授與者」를 目的語로서 「話者」의 立場에서 表現하고 있다.

위와 같이 受益表現의 「~てやる・~てくれる・~もらう」를 述語로 하는 構文은 受給表現 「やる・くれる・もらう」의 構文과 거의 같다.

그런데 (24) 次郎(B)が太郎(A)に本を買ってもらう。의 경우는 「太郎(A)가 買う」라는 內的 主述關係가 文의 外的 主述關係 「B가~てもらう」에 포괄되어 있는 것이다. 「買う」의 主體와 「~てやる/~てくれる/~てもらう」主體와의 구별이 授受動詞述語의 構文分析에 있어서 文의 主語・話者側이라는 視點 이외에 一般動詞의 行爲가 추가되어 짐을 알 수 있다.

이들 動詞는 모두 「_____가_____を V1て V2」로서 사용된다. が名詞句를 A로, 二名詞句를 B로 나타내고, 事物의 行動/行爲의 방향을 화살표로 나타내어, 話者의 視點이 A와 B의 어느 쪽에 위치하는가를 나타내보면 다음 <表 13>와 같다.

<表13>

「あげる」	「くれる」	「もらう」
A → B	A → B	A ← B
「◎」	「◎」	「◎」

「◎」는 話者의 視點

이상 受益表現의 기본적인 의미와 용법을 살펴보았다.

3.2. 受益表現 「～てやる・～てくれる・～てもらう」의 用法 分析

3.2.1. 「～てやる」

「～てやる」는 話者 또는 話者 側으로 간주되는 사람이 相對方에게 利益・不利益이 되는 行爲의 授受關係를 表現할 경우 使用된다.

「～てやる」는 話者 또는 話者 側의 사람이 行爲에 있어 「授與者」이고 主語이며, 視點도 「授與者」측에 있기 때문에 自行他利態의 構造를 이루고 있다. 「～てやる」의 表現은 話者 또는 話者 側에서 볼 때 相對方이 손아래사람이거나 動・植物인 경우, 話者 側의 것을 他人에게 말할 경우(他人에게 자신의 家族에 관해서 말할 경우)등에 使用되며, 受給表現과 同一하게, 남성의 경우 相對方이 자신과 同等하다고 생각되는 위치에 있다고 간주될 때 이 表現을 使用하기도 한다. 여기에서 他人은 보통 윗사람이 아니라 아랫사람이다. 또한 人稱 上의 制約에 있어서는 受給表現과 마찬가지로이다. 「授與者」가 「受惠者」보다 人稱 序列 上 위이거나 같을 때 사용한다. 따라서 目的語에 1人稱이 올 수 없는 制約을 갖는다.

(39) お母さんがお妹に自轉車を買ってやりました。

(40) 母がこどもと遊んでやる。

(41) お前のために本を讀んでやるよ。

(42) 弟のために英語を教えてやった。

(43) 次郎のお誕生日にボールを買ってやった。

(44) あなたが花に水をかけてやった。

(45) 彼が犬を散歩に連れて行ってやった。

위의 用例에서 알 수 있었듯이 利益·恩惠의 授受表現으로 자신이 行爲하여 他人에게 좋은 쪽으로 影響을 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 할 수 있으며 「~てやる」는 松下(1930)¹⁵⁾의 用語의 「自行他利態」와 일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現代日本語에서는 「授與者」가 話者보다 손아랫사람이거나 話者と 同等的한 관계라고 하더라도 「~てやる」보다 「~てあげる」를 사용하는 傾向이 강해지고 있다. 「~てあげる」는 자신의 動作을 나타내는 動詞에 붙어서, 好意의 뜻을 갖고 다른 사람에게 好意的 行爲를 하는 의미를 갖고 있다.

그러나 「~てあげる」는 話者나 話者側을 낮춰 相對方을 높게 표현하는 謙讓語이지만, 現代에는 정중어로 그것이 다시 普通語나 美化語로 변해 가고 있는 傾向도 發見되고 있기 때문에 謙讓語로 단정짓기는 어려울 것 같다. 이상과 같이 「~てあげる」는 「~てやる」表現과 같이 主語의 인칭에 따라 目的語가 制約을 받게 되고 話者の 표현위치는 항상 主語에 있으며 目的語에 1人稱은 올 수 없다는 制約을 갖고 있다. 「~てあげる」표현에 있어서 주의해야 할 점은 정중한 표현으로 잘 못 이해하고 사용하는데 있다. 존경의식이 없는 謙讓語이기 때문에 사용 시 주의를 해야 한다. 用例 (48)의 a 의 경우는 話者が 相對方에게 恩惠를 베풀어주는 立場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相對方에게 不快感을 줄 수 있으므로 손윗사람에 대해서는 直接的인 使用을 피하고, (48)의 b 와 같이 사용하거나, 대면이 아닌 경우 즉 제 3자에게 말할 경우에 (49)와 같이 使用하도록 한다. 또는 (49)과 같이 「~てさしあげる」를 사용하도록 한다.

(46) 田中さんに鈴木さんの電話番號を教えてあげました。

(47) 何事も母に説明してあげる勇氣がない。

(48) a.先生、私が案内してあげます。

15) 松下大三郎(1924) 『標準日本語文法』 紀元社

b.先生、私がお案内いたします。

(49) 私が先生を案内してあげました。

(50) 私が先生を驛まで送ってさしあげました。

3.2.2. 「～てくれる」

「～てくれる」는 他人으로부터 話자에게 行爲가 移動되는 것을 나타내는 表現이다. 「～てくれる」의 文에서 他人은 行爲의 主体인 동시에 文의 主語지만, 視点은 目的語에 있는, 他行自利의 構造를 이루고 있다. 「授與者」가 손윗사람일 경우에는 「～てくれる」의 尊敬語인 「～てくださる」를 使用해서 「授與者」에게 敬意를 表할 수 있다. 또한 그다지 친하지 않는 사람인 경우에도 「～てくださる」를 使用하는 경우도 있다. 「～てくれる」의 命令形 「～てくれ」「～てください」는 사람에게 무엇을 부탁할 때 자주 이용된다. 人稱 上의 制約에 있어서도 受給表現과 마찬가지로 「授與者」가 「受惠者」보다 人稱序列이 낮을 때 使用한다. 따라서 「～てくれる」, 「～てくださる」는 話者 즉, 「授與者」側에 1人稱이 올 수 없다는 人稱上의 制約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아래의 用例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

(51) お巡りさんが(私に)道を教えてくださいました。

(52) 先輩は私の代わりにお金を拂ってくれました。

(53) ベイかさんは(私に)英語を教えてくださいました。

(54) 父は私に毎年プレゼントを買ってくれました。

(55) 私の作った料理を彼は美味しそうに食べてくれた。

(56) あなたが母を手傳ってくれました。

(57) 友達は切符を買って来てくれた。

(58) 山田さんが書類を取ってくれた。

(59) ボールをとってください。

3.2.3. 「～てもらう」

「～てもらう」文의 主語인 話者 혹은 話者 側の 사람이 他人으로부터 行爲를 받는 것을 나타낸다. 行爲를 「授與者」는 他人이지만, 文의 主語도 話者의 視点도 「受惠者(話者)」쪽에 있으므로 自行自利의 構造라 할 수 있다. 「授與者」가 손윗사람이거나 그다지 친하지 않은 사람일 경우에는 「～てもらう」의 謙讓語인 「～ていただく」를 使用해서 授與者에게 敬意를 포함할 수 있다. 「～てもらう」表現은 目的語에 1人稱을 취할 수 없고, 主語의 立場이 目的語보다 普遍的으로 윗사람이거나 同等한 立場일 때 使用되는 表現이다.

(53) 私はベイかに英語を教えてもらいました。

(54) 兄はおじさんに自動車を買ってもらいました。

(55)*べいかは私に英語を教えてもらいました。

(56)*おじさんは兄に自動車を買ってもらいました。

(57) 田中があなたに本を買ってもらった。

(58) 花子は田中さんに本をいただいた。

(59) 田中が友達に手傳いに來てもらった。

(60) あなたはハヤク醫者に診察してもらった方がいいですよ。

이와 같이 「～てもらう」表現은 상대방의 行위로 인하여 話者 자신이나 자기쪽 사람에게 利益·恩惠가 되는 것들이다. 用例 (55), (56)과 같이 目的語에 「私」나 「兄」와 같이 話者(1人稱:)나 話者 側の 사람은 취할 수 없다는 人稱 上의 制約이 있음을 알 수 있다.

「～てもらう」表現은 「授與者」와 「受惠者」의 위치를 바꾸면 「～てくれる」로 表現할 수 있다. 「～てくれる」를 쓰면 자진해서 상대방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해준다고 하는 뉘앙스가 강하며, 「～てもらう」를 쓰면 「受惠者」가 부탁해서 「授與者」가 行爲를 한다는 뉘앙스가 있지만 이 두 가지 表現이 명확히 구분되어 쓰여지는 것은 아니다.

受益表現은 人稱이나 視点에서 受給表現과 같은制約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14>와 같다.

<表14>

～てやる	授與者		受惠者
행위의 이동 (恩惠의 收受)	授與者	→	受惠者
인칭의 서열	1인칭	≥	2, 3인칭
시점의 위치	主語(視點)		目的語

～くれる	授與者		受惠者
행위의 이동 (恩惠의 收受)	授與者	→	受惠者
인칭의 서열	2, 3인칭	<	1인칭
시점의 위치	主語		目的語(視點)

～もらう	受惠者		授與者
행위의 이동 (恩惠의 收受)	受惠者	←	授與者
인칭의 서열	1인칭	≥	2, 3인칭
시점의 위치	主語(視點)		目的語

이상 受益表現 「～てやる・～てくれる・～もらう」의 用法에 關係 살펴 보았다. 다음 장에서는 受益表現의 不利益・迷惑的 意味의 用法에 關係서 살펴 보겠다.

3.3. 受益表現의 不利益・迷惑的 意味의 用法

일반적으로 授受動詞의 受益表現은 前述한바와 같이 恩惠나 利益이 되는 行爲의 移動을 나타내는 경우에 使用되는 表現이다. 하지만 受益表現의 경우 모든 경우가 恩惠나 利益이 되는 行爲의 意味를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 不利益의 意味를 나타내는 용법도 있다. 不利益을 나타내는 意味의 용법을 迷惑的인 意味용법¹⁶⁾, 마이너스적인 利益의 意味용법 등으로 부르기도 한다.

본 章에서는 恩惠나 利益이 되는 行爲의 移動을 나타내는 용법과는 反對의 意味의 용법에 대해 考察해보고자 한다. 受益表現 「~てやる」, 「~てくれる」, 「~てもらう」의 迷惑的인 意味용법 대해 살펴본다.

3.3.1. 「~てやる」

「自己(主語)의 意志・決意를 강하게 表明하거나 상대방에게 「不利益」을 주는 경우의 表現으로써 主格에 오는 話者 또는 話者側 사람이 他人에게 不利益을 주는 경우의 「~てやる」用例를 통해 살펴본다.

- (61) あんなやつ、ぶんなくってやる!
- (62) 見てろ、今度こそ、降格してやる。
- (63) いつか偉くなってやる!
- (64) 大金をふんだくってやる。
- (65) 腹が立つのでどなりつけてやった。
- (66) ばかにした奴らをいつか見返してやりたい。

(61),(62),(63)에서와 같이 「~てやる」를 사용하여 話者が 他人에게 「不利益」을 주는 表現으로써 迷惑적인 강한 意志를 나타내는 용법이 있으며,

16) 豊田豊子(1974), 『補助動詞「やる・くれる・もらう」について』, 日本語學校論集 1号, 東京外大附屬日本語學校

(64), (65)에서 「ふんだくる」나 「どなりつける」는 迷惑的인 의미로, 利益이 아닌 상대에게 不利益을 주는 表現이라고 해서 「やりもらい」의 補助動詞를 동반한 表現이 마이너스의 利益을 表現하는 경우도 있다. 例文 (61),(63)과 같이 決意를 나타내는 경우 「~てやる」는 단독으로 強한 語調(「!」)를 동반해서 表現하거나 (66)과 같이 希望을 나타내는 「~たい」가 쓰이기도 한다.

「~てやる」의 意味用法은 이렇게 先行動詞의 영향을 받는 것이기는 하지만, 결국 話者が 어떠한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그 先行動詞를 사용하여 文章을 表現하는가에 따른 문맥상의 정보에 의해 그 意味用法이 결정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迷惑的인 의미에 있어서 視點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迷惑的인 의미가 될 수 있고, 그 反對의 의미가 될 수도 있다. 그러므로 話者の 視點을 明確히 제시해야 할 것이다. 또한 「~てやる」가 가지는 ‘不利益·迷惑’ 의미용법에서의 「~てやる」의 거친 느낌을 피하여 「~てあげる」를 사용할 수 있다.

3.3.2. 「~てくれる」

「~てやる」의 경우는 行爲의 主體가 話者인데 반해, 「~てくれる」는 話者の 行爲의 主體가 行爲를 받는 立場에 서서 表現하는 것으로써 受益表現에 있어 「~てくれる」는 動作의 主體가 他人이고, 動作主가 話者인 경우로서 사건을 話者の 立場에서 表現하는 것이다. 「~てくれる」의 迷惑的인 의미의 용법을 話者나 話者側의 사람이 主格에 오는 他人으로부터 不利益을 받은 경우와 客觀的인 사태를 두고 話者 자신이 그 사태를 不利益을 받는다고 보는 경우, 그리고 話者の 他人에 대한 責望을 意味하는 경우로 나눌 수 있다. 不利益·迷惑的인 의미로서의 「~てくれる」는 다음과 같은 用例를 통해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67) とんなことをしてくれたなあ。

(68) よくもひとの顔に泥を塗ってくれたなあ。

(69) とんでもないことをしてくれたものだ。

(70) 山田が病気で欠席してくれて、人数が人に足りなくて、困ったの。

(71) どうしてほんとうのことを言ってくれなかったの？いってくれたらよかったに。

迷惑的 의미의 利益用法은 「~てやる」의 경우만이 아닌 「~てくれる」에 관해서도 위의 用例 (67), (68), (69) 과 같이 그 行爲실행이 자신에게 있어 단차하게 되어, 不利益(害)을 받는 경우일 때 使用되는 것을 알 수 있다.

用例 (70)와 같이 客觀的인 사태를 두고 話者 자신이 그 사태를 不利益을 받는다고 보는 경우, 그리고 用例 (71) 와 같이 文章 속에서 「どうして」「なぜ」라는 문체가 不定形과 함께 사용되어 話者の 격한 感情을 表출된 話者の 他人에 대한 責望을 意味하는 경우로 나뉠 수 있다.

이처럼 「~てくれる」은 話者と 직접 관련이 없는 客觀的인 狀況에 대해서조차도 자신이 그와 관련하여 利益·혹은 不利益을 받았다고 主觀的으로 생각하여 表現하는 것이 가능하다. 다음 用例를 살펴본다.

(72) 長い冬が行き、やと春が来てくれた。

위의 用例(72)와 같이 「~てくれる」은 無生物이나 意志를 가지지 않는 自然現象이나 無生物이더라도 마치 그것이 자신을 향하여 일어나는 것인 듯 表現 할 수 있다.

「~てやる」나 「~てもらう」보다 더 話者の 主觀的인 판단에 의해 의미 용법이 결정된다는 것이 특징이라고 볼 수 있다. 즉 「~てくれる」의 의미 용법 분류도 그 문장이 迷惑的 표현으로 보일지라도 「~てやる」와 같이 先行動詞의 의미에 우선하여 用例의 내용이나 문맥에 따라 그 문장이 “利益· 恩惠의 의미”, “不利益·迷惑의 의미”로 바뀔 수 있다는 것이다.

3.3.3. 「～てもらう」

益岡隆志・田窪行則(1992)¹⁷⁾는 의미적인 観点에서 「～てもらう」表現을 全章의 受益表現에서 살펴본 「利益・恩惠」의 용법 外에 「不利益・迷惑的」의 의미의 용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てもらう」表現은 主格에 오는 話者 또는 話者側 사람이 他人으로부터 不利益을 받는 경우에 사용한다. 기본형에 「～てもらう」가 결합한 형태는 話者が 行爲主体로부터 行爲를 받아 不利益・迷惑을 입는다는 의미로 분류된다. 「～てもらう」의 ‘不利益을 받는 경우’는 話者에게 있어서 바라지 않는 상황이므로 非自主적인 경우만이 적용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73) 忘れてもらっては困る。昨日、そちが立ててくれた掛のことよ。

(74) 遅れてもらって困るからな。

(75) この狭い部屋にピアノなんかおいてもらっちゃ大変だよ。

(76) 葉子さん今になってそう泣いてもらっちゃわたしがたまりませんよ。

(73)는 話者が 他人의 「忘れる」의 行爲로 인해 「困る」하여 不利益을 받는 경우이고, (74)는 他人이 「遅れる」의 行爲로 인해 「こまる」하여 不利益을 받는 경우 「こまる」하여 不利益을 받는 경우를 나타낸다. (76)의 경우 ‘葉子さん’이 「泣く」하여 話者인 「わたし」가 不利益을 받는 경우이다.

이와 같이 話者が 行爲主体의 行爲로 인하여 자신이 不利益을 받았다고 느끼고 일방적으로 표현하는 것이므로 「～てやる」나 「てくれる」로의 교체는 불가능하다.

「～てもらう」을 사용한 迷惑的인 用法과 「受動表現」의 관계성에 대해 洪令子¹⁸⁾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受動表現은 일상생활 속에 일어나

17) 益岡隆志・田窪行則(1992) 『基礎日本語文法』, くろしお出版

18) 洪令子(1996), 「行爲の授受動詞に關する考察-てもらう構文を中心に」

는 事態를 자신의 觀點에서 받아들인 表現이다. 이러한 受動表現은 迷惑受動, 被害의 受動, 非情의 受動으로 분류된다. 被害의 受動은 相對方 行爲의 영향을 받는 자신을 被害者라고 意識해서 迷惑的인 기분이나 恩惠의 기분 등이 내포되어있다.

被害의 受動은 迷惑와 恩惠의 受動으로 나눌 수 있다. 그 중에서 恩惠의 受動과 「てもらう」의 관계를 살펴본다.

- a. 私は先生にほめられた.
- b. 私は先生にほめてもらった.
- c. 私は先生に叱られた.
- d. 私は先生に叱れてもらった.

一般受動과 「てもらう」의 共通점은 a, b 둘 다 ‘恩惠나 利益의 意味’를 내포하고 있다. c, d는 先行動詞의 의미에 따라 ‘不利益의 意味’를 내포하고 있다는 것이다.

一般受動과 「てもらう」의 의미의 차이를 생각해 본다.

- (77) 友達に來られて、寢られなかった.
- (78) 友達に來てもらって、宿題が早く終った.

위의 用例의 경우 受益表現인 「~てもらう」表現과 受動表現 모두 「友達が來た」라는 것은 공통되는 사실이지만 意味的으로는 다른 ニュアンス를 풍기고 있다. 즉 (77)의 경우는 친구가 방문해서 자신이 좋지 않은 영향을 받았다는 뜻이 내포되어있는 受動表現이고, (78)은 친구가 방문해서 자신에게 도움이 되었다는 즉 플러스적인 의미의 「~てもらう」表現이라고 볼 수 있다.

이처럼 受動表現과 「~てもらう」表現은 의미상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

다. 또한 使役に 「~てもらう」가 결합한 형태에 대해 森田는 話者が 무엇인가의 行爲를 하는 것에 대해 行爲主体로부터 許可·容認을 구하는 것을 나타낸다고 설명하고 있다.¹⁹⁾ 基本形에 「~てもらう」가 결합한 形態에 대해서는 前述했으므로 使役形에 「~てもらう」가 결합한 形態를 用例를 통해 살펴본다.

(79) あとちょっと甘えさせてもらっていいかな。

(80) 二度目に灸が五号の部屋を覗いたとき、女の子はもう赤い昨夜の着物を着て母親に禦飯を食べさせてもらっていた。

(81) そんなところを見せてもらっても、僕には何の益にもならんからね。
見たって分らないんだもの。

(82) 課長、あしたは休ませてもらいたいですが。

위의 用例는 使役に 「~てもらう」가 결합한 形態로써 어떤 行爲를 하는 것에 대한 許可, 容認을 구하는 의미로 사용된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奥津敬一朗는 「~てもらう」表現은 利益的 行爲의 취득이라는 基本的인 의미 이외에 使役主가 被使役者에 대해서 요구하는 것에 따라 被使役者가 어떤 行爲를 한다고 하는 派生的인 의미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이상 不利益·迷惑的인 「てもらう」의 用法에 대해 살펴보았다.

19) 森田良行·松木正恵 「日本語表現文型」アルク, 1989, p297~298

IV. 結論

授受動詞의 受給表現의 用法과 受益表現의 用法에 대해 考察해 본 결과, 다음과 같은 結論을 도출해 낼 수 있었다.

授受動詞는 「やる・くれる・もらう」를 사용해 事物을 주고받는 受給表現과 조사「~て」를 수반하여「~てやる・~てくれる・~てもらう」로 활용하여 利益・不利益이 되는 일 등, 그 行爲를 주고받는 表現인 受益表現으로 나눌 수 있다. 이들 授受動詞의 受給表現과 受益表現은「人稱 制約」을 받고 「話者の 視點」에 따라 授受動詞의 表現法에 相異點을 보이는 등의 특징이 있었다. 本 研究의 考察結果를 다음과 같이 整理할 수 있다.

「やる」, 「くれる」, 「もらう」, 의 授受動詞는 각각 人稱上 制約을 갖고 話者の 視點이 介入하는 動詞로서 「やる」는 「授與者」가 「受惠者」보다 人稱序列 (1人稱(私)>2人稱(あなた)>3人稱(他人)) 높거나 同等한 경우에 使用하고 「授與者」側에 視點이 맞추어져 있으며, 「受惠者」는 1人稱으로 서술될 수 없다.

「くれる」는 「授與者」를 主語로 취하는 表現이지만 視點에 있어서 「授與者」가 아닌 「受惠者」側에 視點을 둔 表現으로써 「授與者」는 1人稱이 쓰일 수 없고, 「授與者」에는 2, 3人稱만 쓸 수 있다. 그리고 「授與者」가 2人稱일 경우 「受惠者」는 1人稱이나 3人稱을 쓸 수 없으나, 「授與者」가 3人稱일 경우는 「受惠者」가 1人稱이나 2人稱, 3人稱 모두 可能하다. 단 2人稱과 3人稱 間의 授受, 혹은 3人稱 間의 授受를 나타내는 경우에는 「話者の 視點」이 「受惠者」側에 맞추어진 경우에만 可能하게 된다.

「もらう」는 「受惠者」를 主語로 취하고 「受惠者」側에 視點을 둔 表現이다. 「授與者」를 1人稱으로 취할 수 없는 表現으로서, 「くれる」와 같은 人稱制約이 있다. 다만 「もらう」는 主語에 視點을 둔 表現이고, 「くれる」는 目的語에 視點을 둔 表現이 된다. 이와 같이 人稱制約과 話者の 視

點에 따라서 授受動詞의 사용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다.

受給表現과 受益表現에서 利益·恩惠를 나타내는 용법에 있어서는 視點이나 人稱制約에서 共通點을 보였다. 授受動詞의 受益表現에 있어서는 「～てやる」, 「～くれる」表現이 事物의 移動외에, 事物의 移動과 관계없는 行爲만의 移動, 또는 自己意志의 提示·強調, 또는 話者와는 상관없이 一方的인 主觀的 감정 表출에도 사용된다. 「～てもらう」表現은 상대방의 行위로 인하여 話者 자신이나 자기 쪽 사람에게 利益·恩惠가 되는 표현으로서 목적어에 「私」나 「兄」와 같이 話者(1人稱)나 話者 側 인물이 그 대상이 될 수 없는 人稱制約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受益表現 「～てやる·～てくれる·～てもらう」의 利益·恩惠의 用法외에 不利益·迷惑的인 用法에 대해서도 考察하여 보았다.

「～てやる」의 경우 話者가 他人에게 「不利益」을 주는 표현으로써 迷惑적인 강한 意志를 나타내는 용법으로 사용된다. 不利益을 주는 의미의 動詞인 先行動詞의 영향을 받아 迷惑的적 의미가 될 수 있고, 그 反對의 의미가 될 수도 있다. 話者가 어떠한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그 先行動詞를 사용하여 文章을 표현하는가에 따른 문맥상의 정보에 의해 그 意味用法이 결정된다고 할 수 있으므로 話者의 視點을 明確히 제시하여야 한다.

「～てくれる」는 話者와 직접 관련이 없는 客觀的인 狀況에 대해서조차도 자신이 그와 관련하여 利益·혹은 不利益을 받았다고 主觀的으로 판단하여 表現하는 용법으로써 사용된다. 「～てやる」나 「～てもらう」보다 더욱 話者의 主觀的인 思考에 의해 표현내용이 결정된다는 특징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てもらう」表現은 話者 또는 話者 側 사람이 他人으로부터 不利益을 받는 경우에 사용한다. 또 受動表現과 결합하여 迷惑受動, 被害의 受動으로 분류된다. 被害의 受動은 相對方 行爲의 영향을 받는 자신을 被害者라고 意識해서 迷惑的인 기분이 내포되어 있다. 「～てもらう」의 ‘不利益을 받는 경우’는 話者에게 바람직하지 않은 상황의 전개이므로 非自主的이며 불가항

력적인 상황까지를 포함한 話者의 事態 전개에 대한 否定的인 정서의 표출인 것이다.

参考文献

<単行本>

- 松下大三郎(1924), 『標準日本語文法』, 紀元社
- 宮地 裕(1965), 『言葉の研究』(第2集) 『敬語の理解』, 秀英出版
- 鈴木重幸(1972), 『日本語文法・形態論』, むぎ書房
- 森田良子(1977) 『基礎日本語』 角川書店
- 宮地 裕(1978), 『論集日本語研究9. 敬語「敬語の解釋」』, 有精堂
- 久野 暲(1978), 『談話の文法』大修館書店
- 庵 功雄 (1978), 『談話の文法』, 大修館書店
- 寺村秀夫 外3人(1987), 『ケーススタディ日本文法』, 櫻楓社.
- 吉河武時(1989), 『日本語文法入門』, 株式會社アルク
- 金田一春彦(1989) 外, 『日本語百科事典』, 大修館書店
- 小泉保外(1989), 『日本語基本動詞用法辭典』, 大修館
- 益岡隆志・田窪行則(1992), 『基礎日本語文法』, くろしお出版
- 森田良行(1995), 『日本語의 視点「12. 受給表現의 特異性」』, 創拓社
- 井上和子(1998), 『日本語文法小辭典』, 大修館書店
- 庵 功雄 外3人(2000) 『日本語 文法 ハンドブック』
株式會社スリーエーネットワーク
- 庵 功雄(2001), 『新しい日本語學入門』, スリーエー ネットワーク

<論文>

- 金鎮愛(1983), 日本語授受動詞 「やる、くれる、もらう」を述語とした文に
關する考察, 韓國外國語 大學校 大學院 碩士學位論文
- 嚴在哲(1991), 「日本語의 授受動詞에 관한 考察」
慶南大學校 教育大學院, 碩士學位論文
- 洪令子(1996), 「行爲の授受動詞に關する考察-てもらう構文を中心に」
慶熙大學校大學院 碩士學位論文
- 宋正植(1999), 「授受動詞의 人稱制約과 待遇關係에 관한 一考察」
韓國外國語 大學校 大學院 碩士學位論文
- 沈玄姬(2000), 「日本語の授受表現における誤用に關する一考察-書き言葉と
話し言葉における誤用分析を中心として」, 中央大學校大學院,
碩士學位論文

- 朴未淑(2000), 「日本語の中間表現の中間言語に関する研究-韓國人日本語學習者に見られる授受表現の學習過程を中心に」,朝鮮大學校教育大學院, 教育碩士學位論文
- 金永曠(2000), 「日本語教育에 있어 授受動詞에 관한 誤用考察」
檀國大學校教育大學院, 碩士學位論文
- 金昌男(2001), 「現代日本語における授受動詞について-韓國語との對照を通して」,千葉大學博士學位論文
- 金宣希(2002), 「「てもらう」 표현에 대응하는 한국어 표현 연구」
東亞大學校大學院, 碩士學位論文

<학술지>

- 宮地 裕 (1965) 「「やる、くれる、もらう」を述語とする文の構造について」
國語學63, 國語學會編
- 豊田豊子(1974), 『補助動詞「やる・くれる・もらう」について』
日本語學校論集1号, 東京外大附屬日本語學校
- 奥津敬一朗(1984), 「文の組み立て」, 講座 日本語表現(2), 筑摩書房
- 奥津敬一朗(1986), 「やりもらい動詞」, 國文學解釋の鑑賞51卷1号, 至文堂
- 李正順(1986), 「日本語「やる・くれる・もらう」と韓國語「주다·받다」의 比較研究」, 言語研究
- 日本語教育學會編(1988), 『日本語教育事典』大脩館書店
- 鄭惠卿(1994), 「親疎관계에 의한 依賴表現의 使用法-「~テ+授受動詞」
構文의 分析을 中心으로」, 日語日文學研究 第27輯
- 黃順花(1994), 「日本語補助動詞「~してもらう」에 관한 韓國語와의 對照研究(I) 韓國日本學會 第33集
- 洪令子(1996), 「行爲の授受動詞について-「使役+てもらう」の意味分析」
日本學論輯 第4輯
- 黃順花(1996), 「~してもらう」에 관한 韓國語와의 對照研究(II)
研究員論集 第2輯
- 康永富(1999), 「日本語と韓國語における受給表現-人稱制約と視點制約を
中心に」日本學報 第43輯
- 李道烈(2002), 「日本語 視點의 카테고리에 관한 研究」, 日本語文學 第16輯

저작물 이용 허락서

학 과	일어교육전공	학 번	20028048	과 정	석사
성 명	한글: 김명희	한문: 金明姬	영문: Myung-hee Kim		
주 소	광주광역시 남구 방림1동 525-3번지				
연락처	062) 673-0787	E-MAIL: janine_kim@hanmail.net			
논문제목	<p>한글 : 日本語의 授受動詞 用法에 關한 研究 - やる, くれる, もらう 用例를 中心으로 -</p> <p>영문 : Investigation on Uses of Verbs "Giving" and "Receiving" in Japanese - With examples of the やる (yaru), くれる (kureru) and もらう (morau)-</p>				

본인이 저작한 위의 저작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조건 아래 조선대학교가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고 동의합니다.

- 다 음 -

1. 저작물의 DB구축 및 인터넷을 포함한 정보통신망에의 공개를 위한 저작물의 복제, 기억장치에의 저장, 전송 등을 허락함
2. 위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의 편집·형식상의 변경을 허락함.
다만, 저작물의 내용변경은 금지함.
3. 배포·전송된 저작물의 영리적 목적을 위한 복제, 저장, 전송 등은 금지함.
4. 저작물에 대한 이용기간은 5년으로 하고, 기간종료 3개월 이내에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에는 저작물의 이용기간을 계속 연장함.
5. 해당 저작물의 저작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또는 출판을 허락을 하였을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대학에 이를 통보함.
6. 조선대학교는 저작물의 이용허락 이후 해당 저작물로 인하여 발생하는 타인에 의한 권리 침해에 대하여 일체의 법적 책임을 지지 않음
7. 소속대학의 협정기관에 저작물의 제공 및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저작물의 전송·출력을 허락함.

2005년 7 월 일

저작자: 김 명 희 (서명 또는 인)

조선대학교 총장 귀하